



영화속 청렴이야기

부패취약분야 『계약편』



카트(Cart, 2014)

장르 드라마

개봉 2014

감독 부지영

출연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김강우, 도경수, 천우희

영화 「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담다”

이 영화는 2007년 이랜드-홈에버 대량 해고사태와 이에 따른 노동자 파업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이랜드 그룹은 홈에버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포함한 계약사 노동자들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외주용역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한다. 이에 반발한 약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이 종료된 시점은 다시 우연히도 전태일 열사의 추모 38주기인 2018년 11월 13일이다. 협상결과는 해고자 28명 중 12명의 노조간부가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16명의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를 두고 노조간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있었다.





영화속 청렴이야기

부패취약분야 『운동부비리편』



카운트(Count, 2023)

장르 드라마

개봉 2023

감독 권혁재

출연 진선규, 성유빈, 고창석, 오나라, 고규필 등

영화 「카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영화는 권혁재 감독의 영화로, 우리나라의 학교 운동부 시합의 승부조작 및 스카우트 비리 등을 재구성한 영화로 어른들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학생 선수들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고등학생 "윤우"의 복싱 경기를 보게 된 주인공이 든든한 뺨이 있는 상대편에게 어쩔 수 없이 저주며 분을 삭이는 모습을 보고 재능 있는 선수가 권력 앞에 무릎 꿇으며 복싱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비리에 맞서 실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인권 존중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속 청렴이야기

부패취약분야 『인사편』



1급기밀(The Discloser, 2017)

장르 스릴러/액션

개봉 2017

감독 홍기선

출연 김상경, 김옥빈, 최무성, 최귀화, 김병철

영화 「1급기밀」은 어떤 내용일까요?

“방산비리가 초래한 위험한 결과 그리고 용기”

이 영화는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으로, 우리나라의 비리 영역에서 꽤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군납비리를 재구성한 영화로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고통을 느껴볼 수 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 실제 주인공인 해군 김영수 소령이 실명과 실제 얼굴이 드러난 상태로 'PD수첩'을 통해 국방비리를 폭로할 당시에는('09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영수 소령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인사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한직으로 전출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에 재정되어 공익제보자들이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영화속 청렴이야기

부패취약분야 『급식편』



아동급식(Child Welfare, 2020)

장르 스릴러

개봉 2020

감독 홍연이

출연 윤세현, 유병선, 정서인, 진재희

아동급식



영화 「아동급식」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동복지는 아이를 위한 것일까?”

이 영화는 홍연이 감독의 작품으로, 아동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살아가는 기현 부부는 아이의 이름으로 아동 급식을 배달 받는다. 언젠가부터 배달되는 급식의 양이 줄어들자 부부는 배달 처에 항의를 한다. 급식을 훔쳐 먹던 배달원 도원은 항의로 인해 잘릴 위기에 처하고, 아이가 없는 것을 의심하여 부부의 집에 들어간다.

아동복지제도의 직접 수혜자는 부모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지 않으면 아이는 받을 수 없다. 아동복지는 아이를 위한 것일까? 라는 물음을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속 청렴이야기

부패취약분야 『공익신고편』



제보자(The Whistleblower, 2014)

장르 스릴러/드라마

개봉 2014

감독 임순례

출연 박해일, 유연석, 이경영, 류현경

영화 「제보자」 는 어떤 내용일까요?

“진실이 국익이지”

이 영화는 임순례 감독의 작품으로, 과거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영화로 상업성과 시사성을 함께 갖춘 영화라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학수(극중 윤민철) PD는 심민호로 대표되는 내부고발자와 함께 국익을 진실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에 맞서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싸웁니다. 2005년 당시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없어서 공익신고자들이 과학 업계에서 추방당하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함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속 청렴이야기

부패취약분야 『예산편』



종이 달 (Pale Moon, 2015)

장르 드라마

개봉 2015

감독 요시다 다 이하치

출연 미야자와 리에, 이케마츠 소스케, 요오시마 유코

영화 「종이 달」 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녀가 그토록 원한 건 무엇이였을까... 횡령의 끝은?”

이 영화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이다. 일본과 같이 한국도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시의성을 지니고 제작된 작품이다.

영화는 평범한 주부였던 여성 '리카'가 파트타임 은행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해오던 와중, 우연히 마주한 횡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다. 영화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 가던 평범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녀가 사회에 의해 겪는 타락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과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영화이다.





영화속 청렴이야기

부패취약분야 『업무지시공정성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2020)

장르

드라마

개봉

2020

감독

이종필

출연

고아성, 이솜, 박혜수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는 어떤 내용일까요?

“차별과 부조리에 맞선 유쾌한 연대”

국제화 시대'였던 90년대, 모 대기업에서 실제로 개설된 고졸 직원들을 위한 '토익반'과, 시기는 다르지만 실제 있었던 폐수 유출 사건이라는 두 축을 베이스 삼아 영화는 출발합니다.

삼진그룹 여직원들은 반복되는 단순 업무(커피 타 오기, 담배 심부름 등)와 회사의 차별 대우에 나날이 지쳐가지만 토익 600점이상을 받으면 대리로 승진 시켜주겠다는 회사 공고를 보고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느날 주인공은 회사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회사는 주민들의 피해에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지시를 하고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회사의 은폐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에 대한 위험을 직원들의 양심에만 의존하던 시절, 지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함께 합니다.





영화속 청렴이야기

부패취약분야 『공사부조리편』



터널 (Tunnel, 2016)

장르 재난/생존/드라마

개봉 2016

감독 김성훈

출연 하정우, 배두나, 오달수

영화 「터널」 는 어떤 내용일까요?

“터널 속에서 갇힌 남자와 그를 둘러싼 이야기”

터널이라는 영화는 무너진 터널에 갇히게 된 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재난과 그 재난을 극복해가는 주인공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언론의 과잉 취재 경쟁과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대처, 인명 구조와 경제적 손실을 저울질하는 사회상을 풍자하여 관람객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영화입니다.

35일만의 구조! 터널 안과 밖의 세상!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세상을 보여줍니다. 터널 안에서 주인공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터널 밖의 구조 상황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는 듯 신속한 대응의 실패, 언론의 특종 보도, 부실 공사, 구조보다는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제스처 등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터널 속에서 갇힌 남자와 그를 둘러싼 세상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화 터널을 만나 보시길 추천합니다.

